

4. 도주엔(藤樹園)

193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도주엔(藤樹園)은 많은 이들에게 분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본 최초의 분재 교실은 1969년 도주엔에서 시작되었으며, 지금도 변함없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도주엔에 있는 약 2,000점의 분재는 강한 인상을 주는 상록수 송백의 아종(두송, 오엽송 등)으로 분재 초보자도 소유하고 가꿀 수 있을 만큼 튼튼한 품종입니다. 분재의 세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은 해외로까지 뻗어 도주엔은 해외에도 분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. 2대째 주인인 하마노 씨는 ‘분재를 기르는 건 기쁨이기도 합니다’라고 말하며, 손님이 분재의 ‘목소리’를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 키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